

서울시,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 'میم' 주제 '공공미술축제' 개최

모방 통해 예술을 재생산하는 대중문화 현상 'میم' 주제로 한 공공미술 축제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2020'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를 개최한다.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에서 예술적 요소와 재미를 가미한 공공미술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میم'을 주제로 'میم'의 문화적 특성을 예술로 재해석한 공공미술 작품 전시, AR 증강현실 체험, 게임, 해시태그 이벤트 등 놀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میم'을 주제로 'میم'의 문화적 특성을 예술로 재해석한 공공미술 작품 전시, AR 증강현실 체험, 게임, 해시태그 이벤트 등 놀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진행된다.

주제 'MEME'는 새로운 대중문화 흐름인 'میم'의 모방, 복제, 재창조 속성을 주목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진, 영상, 해시태그 등을 통해 반복되는 밈 현상을 활용해 예술을 재생산하도록 기획했다.본 축제는 총 4명의 작가와 함께 대중문화의 모방 속성을 살린 작품 전시 및 작품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도파민 작가의 '오-마이 도파민'과 '좋아요 머신'은 MBTI 같은 유형분류 검사 성격의 작품이다.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물질인 도파민을 9가지로 분석해주는 테스트

를 모바일로 진행한 후 결과를 작품에 인식하면 해당 유형의 엽서를 받을 수 있다.정크하우스 작가의 '몬스터하우스 북궁이와 한이, 옥이'는 한옥을 차용한 작품으로 비대면 시대의 일상을 반영한 1인 하우스이다.시민들은 공공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진 마음을 위로받는다.현장에서는 작품 안에 사는 '몬스터'를 증강현실로 만나볼 수 있다. 주재법 작가는 디지털 화소 단위인 픽셀을 복제, 반복해 이미지화한 픽셀 초상화 작품을 선보인다. '네모난 사진관'에서는 픽셀로 표현한 시민들의 초상화가 미디어 작품으로 전시되며 축제 기간에는 작가가 직접 시민의 초상화를 픽셀로 그려주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네모난 미술관'에서는 픽셀로 표현한 명화 작품이 전시되며 해당 작품은 AR 증강현실을 통해 움직이는 영상을 만날 수 있다. '빠빠 작가의 '키키키키'와 '빠빠 빠미끄름틀'은 다양한 도형과 화려한 그래픽 패턴을 활용해 시민이 될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을 제공하며 이곳에서 작가 특유의 궁정적이고 유희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



4명의 작가의 작품을 AR 증강현실로 감상할 수 있는 '증강현실.exe' 체험 존과 90년대 게임 캐릭터 2D의 상을 입고보고 사진을 찍어보는 '포도존.jpg'도 마련되어 있다.이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인스타그램 필터를 사용한 카메라에 화면을 비추면 작품 캐릭터가 튀어 나오거나 화면이 픽셀화 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예술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축제기간 중 11.13~14 문화비축기지에서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그리워하는 시민에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파사드'

가 '서울은 미술관'사업 일환으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공공미술축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위로를 받길 바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대중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공공미술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남도 종합계획, 온라인으로 도민과 전문가 의견 담는다

17일 오후 2시 갯바위에서 '도 종합계획 수립' 위한 온라인공청회 개최

경상남도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도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도 공식 소통누리망 '갯바위'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당초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남미래 20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눠 현장 공청회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시군 담당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과 도출된 의견은 종합 검토해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해 지난해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한 경남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경남의 향후 20년 중장기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시군별·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된다. 경남도는 수립단계부터 도민이 함께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수립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했으며 도민원탁회의 개최, 경남미래2040포럼단 운영, 온라인 도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이번 '도 종합계획'은 지속적인 혁신사회,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4대 목표로 설정했으며 공간전략을 포함한 9+1 핵심전략과 32대 부문별 계획, 18개 시군 발전방향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승인·고시 등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해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2040년까지 경남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발전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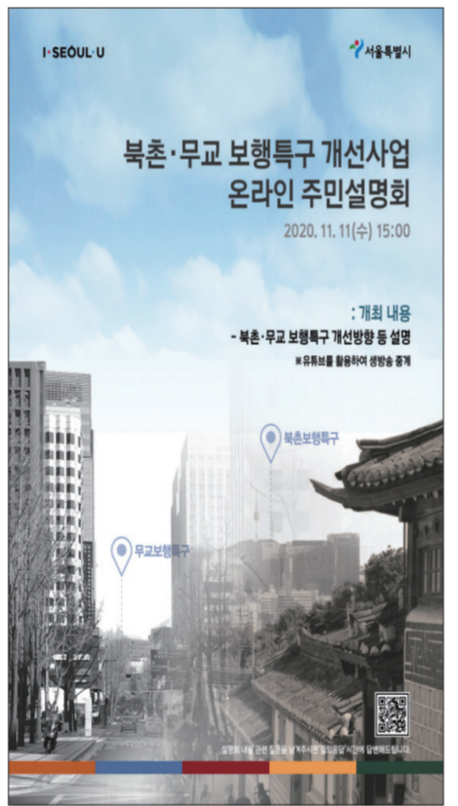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2040) 온라인 공청회. 2020. 11. 17.(화) 14:00~16:00. 온라인 공청회. 가. 참석대상: 경남도민 누구나(도민, 외부전문가 등) 나. 참석방법: '경상남도 공식유튜브 채널' 접속하여 실시간 공청회 참석 및 의견제시 - 경남피셜(https://www.youtube.com/user/gyeongnamdo)

서울시, 북촌·무교 보행특구개선 11일 온라인 주민설명회

보행특구 개념 및 사업 개선방향, 추진일정 설명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통해 구체화

서울시는 보행 이용수요가 많은 북촌·무교 보행특구를 보행자의 거리로 개선하고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북촌·무교특구 보도확장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온라인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수렴해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보행특구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특구에 중점을 두고 보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시는 '17년 서울로 7017·종로 '18년 을지로 '19년 혜화, '20년 무교·북촌 보행특구를 설계하고 '22년까지 공사완료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금년 2월 종로구 북촌로5길 일대와 중구 다동길 일대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고시하고 설계용역 시행을 통해 보도 신설·확장을 검토해 올해 설계안을 확정, '21~'22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북촌 보행특구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 삼청기차박물관,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한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이다.이에 시는 북촌지역의 가로축인 북촌로 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



무교 보행특구는 광화문, 시청 인접 지역으로 업무발달이 밀집되어 있고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청계천 등으로 상시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이다.시는 생활도로의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로를 확장하고 식수대를 설치해 가로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는 보행특구 사업을 통해 역사도심, 관광, 업무, 시민광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대문 안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이나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로 도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특구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쇼핑거리 등 풍부한 이벤트를 가진 지역으로 쾌적한 보행공간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걷는 즐거움을 느끼기 바란다"며 "서울의 도심에 승용차 없이도 편리한 도시, 걸으면 더욱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배달특급 가맹점 신청 4,516건 목표 151% 달성으로 '공정 경쟁' 향한다

화성시 2,275건, 파주시 1,305건, 오산시 936건 기록...가맹 문의 열기 여전히 뜨거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고공 행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의 가맹신청이 4,516건을 기록하며 초기 목표치 3,000건의 150%를 넘겼다.9월 밝혔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시에서는 총 2,275건이 접수돼 목표치 142%를, 파주는 1,305건으로 154%, 오산은 936건으로 무려 170%를 보이고 있다.지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가맹점 사전접수에서 이미 총 3,699건이 접수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시범지역 소상공인들의 가맹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접수된 가맹점 중에는 기존에 배달을 시행하고 있던 점포 외에도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점포도 포함됐다.경기도주식회사는 이러한 점이 배달특급이 갖춘 시장 경쟁력 중 하나

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배달앱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과 가맹점 최대 확보가 기본 조건으로 꼽힌다.배달특급이 두 조건을 손에 쥐면서 민간배달앱과 대등하게 경쟁할 견고한 발판을 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가맹신청이 매일 목표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하는 이유는 시범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 필요성에 공감한 점이 주효하다. 최근 민간배달앱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높은 광고비·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일해도 벌어들이는 것이 적어졌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배달앱 시장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로 분석된다. 특히 배달특급은 경기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11월 중 서비스 개시를 앞둔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 대비 매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소상공인 부담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성공의 기초인 가맹점 확보에서 민간배달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에 올랐다는 데 감사하다"며 "공정한 배달앱 시장 형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서울시, CJ와 함께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 진행

콘텐츠기획제작 등 14개 직무 분야의 임직원 50여명과 대학생 250여명 매칭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11일 양일간 CJ그룹과 함께, 사회 진입을 준비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을 위한 온라인 직무 멘토링 '랜선잡담'을 운영한다.이는 지난 6월에 이어 운영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상반기보다 직무를 확대해 상품개발MD, 콘텐츠기획제작, IT기획개발, 재무회계, 사회공헌 및 10개 직무 분야 임직원 50여명 및 대학생 약 250여명이 참여한다.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참여 이점을 살려, 해외 거주 중인 CJ임직원도 함께 한다.직무 멘토링은 CJ임직원 1인과 직무에 관심 있는 대학생 3-6인 과 짝으로 매칭되어 약 90분 간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현직자의 생생한 직무 경험담·준비방법·비전 등 직무 전반에 걸친 내용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 폭넓고 풍성한 잡담을 나누게 된다.

참여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디지털 마케팅·e-커머스·미디어 플랫폼 등 온라인 산업 직무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CJ임직원들은 이러한 청년의 관심을 충족하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특히 하반기에 새롭게 추가된 영양사, 물품 구매 직무 현직자들의 참여로 대학생들의 직무 탐색 기회가 한 층 더 넓어졌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숙 센터장은, "올해 랜선잡담운영 시 청년들의 높은 관심으로 매 회차 조기 마감되는 것을 보며 코로나로 적극적인 사회 진입 준비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무 현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본 프로그램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보노' 사

업 중 하나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1-2회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들과 함께 청년들을 찾아갔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전환 운영 등의 노력으로 프로보노 봉사자 114명, 청년 475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이어왔다.오는 11월 말을 기점으로 올해 프로그램 운영은 종료되며 내년에도 다시 청년들을 찾아온다.

최재은기자



서울교통공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견적 받은 업체 중 공사 지분보유사 있어 공정한 경쟁 가능한지 의문

서울교통공사에서 149억원을 들여 추진 예정인 일명 지하철 '하이패스' 사업이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큰 그림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공사는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도 자동결제되는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검증 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현실상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 추진을 위해 5개의 업체에서 견적가격을 받았는데, 그 중 A사는 교통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사는 현재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자인 B사의 자회사이다. B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최초 사업제안자로 2018년 7월 교통공사와 '태그리스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시연회까지 마쳤다.

시연회 결과 B사의 태그리스 결제 속도는 5초까지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평을 받아 상용화가 불가해보였으나, 뒤늦게 교통공사는 전문용역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자 공모시 교통공사 지분 보유사이자 최초협약사의 자회사가 경쟁에 참여했을 때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냐"고 지적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의혹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업인걸 감안하더라도, 교통공사 누적 적자가 15조원인 상황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에

149억원을 들여 투자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출발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공공와이파이 관련 연구 성과 전무, 추진계획조차 없는 디지털재단이 떠난게 되

서울디지털재단은 또 현재 기획팀, 정책연구팀, 데이터 혁신팀 등 총 1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없고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의 이관을 위해 관련실국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11월 9일부터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험과 준비도 전혀 없는 재단에 무리하게 이를 떠맡겼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더군다나 서울디지털재단은 2018년 재단 이사장이 비위로 물러나고 지난해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라'를 기록했고 기관장 평가결과는 'C'를 받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도 공석인 상황이다. 따라서 1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맡기에 재단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소양 서울시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이미 민간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경쟁하는 분야"며 "당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실효성 논란도 있었던 마당에 역량이 부족한 서울디지털재단이 과연 운영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꼬집었다.

최광수/기자

서남 물재생 센터 유휴부지, 임대 공공주택이 웬말

박상구 시의원 "시민 원하지 않는다면 시설 백지화 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이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누구의 발상이며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침을 가했다.박상구 시의원은 11월 9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악취나는 현장에,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용 시설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누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인가?"라며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미진하다"고 질책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공주택에서 지으라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인가"라며 이와 관련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서남물재생센터와 맞닿은 유휴부지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체로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중으로 향후 2,5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는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설은 공공주택 건설 계획으로 인해 이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서남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속도를 내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학습고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해당 지역에 충분히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물재생시설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상부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1단계가 2009년 11월에 시작됐으며 2021년 5월 준공예정에 있다.

최만식/기자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탁 전수조사 필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과다 지적

사회복지법인의 과다한 시설 수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으로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9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탁 운영 실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반환액 과다 등에 지적했다.문경희 부의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구성과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통합 시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사회복지법인 관리 감독과 관련해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상근 직원이 3~4명에 불과함에도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법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위수탁 시설이 많은 것은 안 된

다.법인별로 몇 개의 시설을 수탁 받았는지, 상근직원이 몇 명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경희 부의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집행 잔액 과다 및 대상자 과대 선정의 문제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 수당 반환액 과다 문제, 자활근로 사업비 과다 반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보수교육 매뉴얼 개발 필요성,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경기도의 중장기 대책마련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상찬/기자

정승현 의원, 식량안보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승현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자은행의 운영 내실화 및 식량안보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우선 정 의원은 "종자관리소라면 토종종자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충분해야 하지만 현재 종자관리소 및 종자은행의 운영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며 "종자관리소는 고작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자은행 업무 또한 기간직 2명이 전부라는 것은 시설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현재 종자은행에 보관된 토종종자가 804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물 수를 말하는 것인지, 품종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종자은행이 최대 20,000종까지 저장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군과 협업해서 종자 채집에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두식 종자관리소장은 "전국에서 토종종자은행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남과 우리 도가 유일하다"며 "경남에

는 전담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연구부서 및 인력 보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토종종자는 식량안보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식량자급률 통계가 중요한 만큼 경기도 자체 식량자급률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이재명 지사께서 농촌개발사업 지원 등 농업분야 대북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종자관리소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종자관리소 및 종자은행 홈페이지 구축 미비사항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종자관리소의 전략적 역할을 요청했다.

박상찬/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펴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FAIR TRADE 공평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해남군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수상

농정, 친환경, 유통, 축산 등 모든 농정분야 최고 평가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대상수상은 2012년 이후 8년만으로 도내 최고 농업군인 해남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고 있다.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신규시책 발굴 등 창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농업·농촌 활성화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식량원예작물 분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식품산업 분야, 환경친화형 축산 분야,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분야, 신규시책 개발 등 7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2020년 한 해 동안의 농정업무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다.해남군은 올해 친환경인증면적 전남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유기농인증면적이 1,650ha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면서 고품질 친환경 농업 선두주자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농업인일급제 참여 농가가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3대 농업정책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온라인 소비 확대에 따른 전라남도 '남도장터'입점업체 도내 1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증가, 주요 가축전염병 미 발생,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시책 개발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의 주요 산업인 농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써 살기좋은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남원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완료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호당 4백만원 공사 지원

남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완료해 사회적 주거약자인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 착공, 10월 완료까지 남원시 관내에 있는 저소득 계층의 노후주택 46동을 개보수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40%, 60%로 구성되어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의 지붕개량, 벽체보수, 보일러, 도배·장판, 전기, 가스시설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오산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실천특강 '2020 시민교육 한마당' 참여자 모집

오산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1회 오산 평생학습 이웃축제 기간 중에 '2020 시민교육 한마당'을 실시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17개의 목표를 의미한다.

오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오산노루가정폭력상담소,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로컬협동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오산시보건소 등 관내 기관 및 단체 17개와 함께 실천특강을 준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산시민 1명으로 시작해서 기관, 단체가 오산시민 23만명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번 2020 시민교육 한마당을 시작으로 다양한 오산형 시민공동체 교육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오산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2020 시민교육 한마당

11.11 수 - 24 화

특성화캠퍼스 외

교육도시 오산

2020.11.1. ~ 선착순

문의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 8036-7830-7836

집에서 안전하게 즐겨요... '딩동, 정관박물관이다'

정관박물관, 8~11세 어린이 대상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천시 정관박물관은 8~11세 어린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육 꾸러미 '딩동, 정관박물관이다'를 자체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정관박물관 상설전시와 연계해 기획된 이번 교육 꾸러미는 어린이에게 친근한 동물인 '새'를 주제로 하며 창작동화 속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알아보는 '아기새 소리의 대모험'과 삼국시대 집을 본뜬 '집모양 토기' 등 8종의 삼국시대 유물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카드게임 '유물 할리갈리'로 구성되어 있다.교육 꾸러미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박물관 누리집에서 한 가정당 1조씩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가족으로 마감한다.

이후, 11월 17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교육 꾸러미를 우편으로 배부한다.



창작동화 '아기새 소리의 대모험'은 11월 17일부터 박물관 누리집 또는 정관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정관박물관은 12월 6일까지 교육 꾸러미로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교육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거나 교육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5가족을 추천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성현주 부천시 정관박물관

남궁영기자

광명도시공사, 'ISO 45001, ISO 14001 통합 인증' 획득

체계적인 안전보건 및 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능력 공식 입증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중석)가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 및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최고 수

준의 국제 인증으로 안전보건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기업 경영 방침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 및 산업재해 예방 수준, 친환경 경영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그동안 무재해 달성, 에너지 절감 등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임직원을 비롯한 조직의 안전관리의식 및 환경인식을

제고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충족을 통해 공사의 안전보건·환경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했다.

김중석 사장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과정이 전직원이 안전보건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인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주의를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서구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집합 제한시설이다.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단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권고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과 벨트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이른바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잘못된 착용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1월 12일까지, 시행: 11월 13일(금))

올바르지 않은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1. 적용기간 10월 14일(수) ~ 별도 해제 시까지

2. 적용대상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대상은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단, 집단 감염에 취약하므로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종류 시용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KF94, KF80, KF-AD 등 착용 권고하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단, 망사형 벨트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인정 불가)

착용법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세부사항 및 고시공고 참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고양시, 세계스마트시티지구 영상공모전 입상... 11월 17일 국내외 5개 도시와 최종 순위경합

‘스마트 감염증 자동 이력조회 및 사전예방’ 프로젝트 실증과정 영상으로 제작

고양시는 세계스마트시티지구가 주최한 영상 공모전에 참가해 입상했다고 밝혔다. 세계스마트시티 지구는 지난 10월 Smart Health Responder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로 connection in the New Reality 라는 주제의 영상공모전을 개최했다.

고양시는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다’ 라는 제목의 1분 59초짜리 영상을 제작해 응모하고 입상했다.

입상한 영상은 국내외 회원도시 및 단체 제작영상 5개로 오는 11월 17일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최종 경합한다. 심사기준은 독창성과

스토리텔링, 음향·조명·시각적 효과 등 전체적 조화로 17일 온라인 세미나 3부에 상영되며 관객의 인기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고양시는 코로나 감염병이 가져온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스마트 감염증 자동 이력조회 및 사전예방’ 프로젝트 실증을 진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제작영상은 고양시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시상은 오는 11월 17일 세계스마트시티지구 EXCOM 온라인 집행위원회의 날에 어워드 수상도시 발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4회 세계스



마트시티지구 어워드 ‘효율적인 정부 1위’ 수상에 이어 국제 영상공모전에서도 수상하며 고양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정보통신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안성향교 풍화루,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안성시는 안성향교 풍화루와 대성전 2건의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2020년 2월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안성향교 풍화루에 대한 보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2020년 9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가 진행됐고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안성향교 풍화루 뿐만 아니라 대성전도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향교 건축물로 보물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 결정됐다.

안성향교 풍화루는 하층 기둥에 건립 당시 자귀질 치목의 흔적이 남아있고 17세기 시대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영상상 등으로 조선 중기 건축 기법을 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성향교 대성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7세기 중엽 재건된 건물로 조선시대 사묘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 중기 건축 기법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받았다. 또한, 대성전 지붕

의 대들보 등은 자연곡선의 목재를 사용하는 17세기 전반 향교 건축의 시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양성향교 및 죽산향교 대성전 등에서도 나타나 안성향교 대성전은 안성 지역 향교 건축의 지역성 또한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안성향교 풍화루와 대성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건축 재료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이다. 안성향교 풍화루와 대성전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지나면 보물 지정이 확정된다.

현재 안성시에는 2019년 지정된 칠장사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13건이다.

안성향교 풍화루와 대성전이 보물로 지정 확정되면 안성시에는 보물이 15건으로 늘어나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20건, 도지정 문화재가 56건, 향토유적이 43건으로 총 119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김남주/기자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원 참사랑 실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추진

영양군과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지난 6일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회원 3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 여성지도자로서 농가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인 농촌 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면서 평소 관내 환경 정비 및 불우 이웃 돕기, 여러 봉사 활동 등 영양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동체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비영리 학습조직 단체이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 화분 84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및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 72개를 준비해, 읍면 별로 반려 화분 14개, 이불 12개를 회원들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준비한 회원들과 최민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생활개선회는 다양한 지역 봉사에도 함께 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영양 만들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요즘 관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나눔을 해주신 생활개선회에 감사드리며 정성들여 준비한 물품들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상남도, ‘제58회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원년 기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격려

경상남도는 9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일선 소방공무원 등 30여명과 소방공무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일반 도민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소방공무원과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경남소방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행사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후 국민의례와 유공자 표창에 이어 기념사,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도민 6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119에 도움을 받은 도민들이 영상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비대면으로 도지사 및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김경수 도지사는 축사에서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소방의 날을 축하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준 데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은 소방관의 의무이고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지사의 임무”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인용/기자

서울시교육청,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나눔 한마당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11개 각 교육지원청이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5주에 걸쳐 초등학교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나눔 한마당이라는 대주제로 나눔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수업 혁신에 대한 고민과 성장을 공유하면서 교사의 자발적인 교실혁신 성과를 함께 배우는 자리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꿈실(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 사례, 수업 공개, 특

강 등의 내용으로 초등학교 관내 희망 교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21학년도에도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의 성장을 위한 수업 나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에 학생참여 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자발적·협력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한 협력적 연구문화 및 수업 나눔이 확대되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구	시/군/구	기간	비고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북부교육지원청	안동시	11.23.19 ~ 12.04.20	2020년 11.9(월) ~ 12.11(금)

영양시장 장보기, 집 앞까지 배달해드려요~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영양군은 영양시장 장보기·배송 서비스를 지난해 7월 10일 시범운영 후 본격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선7기의 생활밀착형 정책인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는 지역마트 등에서 실시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한 전통시장만의 장보기·배송서비스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제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가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영양시장 상인회에서 시범운영해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적극 개선·반영해 올해 1월 정식운영을 시작해 월 평균 380

여건의 배송성과를 거두는 등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식시행되는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는 시장 내 개별점포나 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양군 관내 어디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했던 제품을 집 앞까지 배달해, 교통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 시장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장을 보기 힘든 젊은 층까지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최적의 쇼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질의 상품과 장보기·배송서비스 등과 같은 주민편의 서비스를 마련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최만식/기자

최홍묵 계룡시장, 육군참모총장과 환담 및 업무협의 실시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조 약속

최홍묵 계룡시장은 지난 9일 계룡대를 방문해 육군참모총장과 환담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조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 시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육군에서는 참모총장과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최홍묵 시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의 도움에 대한 감사와 민-군 상생발전 방안 등에 언급했고 남영신 총장은 지속적인 계룡역주 차장 확충을 요청하는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계룡시장과 육군 참모총장 환담 외에도,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 최근 우리 시의 주요 시정에 관한 실무협의에서는 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과 시 관계자 그리고 육군정책실 대외협력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만나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약속하고 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발전적 민-군 협력 및 상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과제로 계룡시민의 신도안 지역 군 복지시설 활용을 위한 명문화 조치 안보생태 프로그램 추진 방안 계룡병영체험관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나누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2021년은

계룡시 개척 이래 최대 행사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인 만큼 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엑스포를 비롯한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서구, 겨울철 폭설·한파 대응 총력체계 가동

인천 서구가 겨울철 폭설 및 한파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구는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인명·재산 피해 예방 등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겨울철 폭설 대비 일제 조사·대책 마련 '빈틈없다' 우선 서구는 빈틈없는 겨울철 재난 대응을 위해 관내 노후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해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시설관리자 등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 옥외광고물은 폭설 시 내하력 부족으로 붕괴 위험이 크므로 옥외광고물 소유자가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으며 눈사태나 등산객 고립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도 점검·대처토록 했다.

고갯길 등 고갯길 등 관내 제설취약지역 26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며 구 중심의 도로 제설대책 추진상황을 운영해서 폭설 시 4개 전진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에 따라 선제적 상황 보고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비상연락망 정비 완료했으며 폭설·한파 예보 시 신속하게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으로써 민·관·군 협력 체계를 통해 분야별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 핫라인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 담당 공무원 등 선발대를 현장에 즉시 파견해 '쫓'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상황을 전송, 구정장에 게 보고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눈사태 발생 및 등산객 고립 등 상황이 발생하면 '드론'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함께 인명구조에 나서고 눈사태 등 위험성을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폭설 시 각 동별 자체 마을제설반을 편성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제설해서 노약자 등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구민·학생이 제설작업에 참여할 경우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한파 대응 체계 확립·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쫓쫓' 서구는 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대응 체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우선 한파 관련 농·축·수산분야 중 취약지역인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정비하도록 했다.

경로당 등 93개소로 지정된 한파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정비 완료했으며 안전디딤돌에 정확한 자료를 게시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파 예보 시 한파대책 종합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거동불편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



김종남기자

돌보미나 건강보존 전문인력 등을 지정·활용해 안전확인 및 피해사례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독거노인 세대에 야쿠르트 배달사업·신문 배달사업 등을 진행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일일상황보고를 실시하고 한랭 질환 예방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겨울철 폭설 및 한파 시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보호에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재난대응에 임하고 관내 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가을철 산불방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남원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하는 산불방지 위반행위는 1. 입산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 2.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폐기물소각 3.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이며 집중 단속에 따라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남원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대해 산불감시원을 등산객이나 입산물체취자가 많은 시간대 중심으로 감시원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할 계획이며 주변 주차 차량에 대한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해 산불발생 시 실화자 수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기에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가을철 산불방지에 동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공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기간 과태료 등 면제

공주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시는 특히 자발적인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상하수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지하

수팀로 문의하면 된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해 불법 지하수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후후 불법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규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양양군, 해양쓰레기 정비. 다시 찾은 낙산 해수욕장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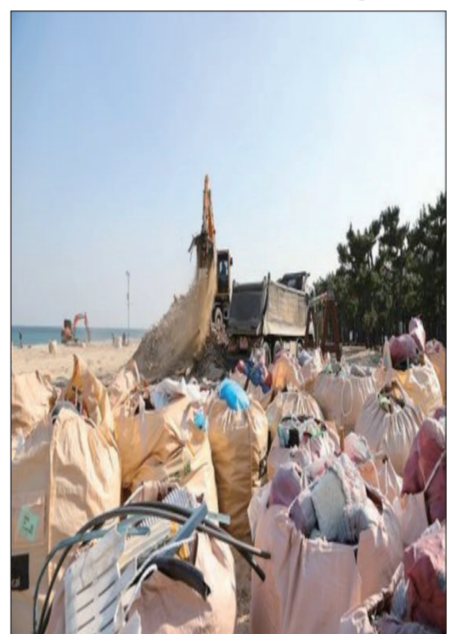
낙산·정암·물치 완료, 나머지 해안 11월 중 모두 완료

양양군이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국비 11억 5천만 원을 최종 확보,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며 해양쓰레기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낙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정암·물치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정비를 완료하고 낙산 일부 구간도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머지 해안도 11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바닷가로 유입된 폐목재, 일반폐기물 등 5,000톤의 해양쓰레기를 긴급 수거·처리하기 위해 긴급 복구장비를 투입, 지역 주민과 방문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및 해안경관 저해 방지에 힘썼으며 지역주민, 공무원, 군부대, 자원봉사 단체 등의 동참을 유도, 수거 활동을 전개해 응급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주말 낙산 해수욕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이전에 가족들과 낙산을 찾았을 때는 쓰레기들이 중간 중간 쌓여 있었는데, 이번엔 다시 찾아와 기존의 아름답고 깨끗하던 경치를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광주시, 불법 미용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관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미용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부작용을 예방하며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불법의료·시술 행위, 면허대여 영업행위, 공중위생 영업 설비기준이행,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상습·고의적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하며 법정 교육인 위생교육에 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현 시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문신 등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맛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www.yyg.go.kr

영양고추, 사과, 배, 감, 사과, 배, 감, 사과, 배, 감

영양고추, 사과, 배, 감, 사과, 배, 감

영양고추, 사과, 배, 감, 사과, 배, 감

서울시, 동대문 made in KOREA 제품에 정품인증라벨 부착...라벨같이 원천차단

한국조폐공사 화폐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직접 정품 확인

서울시가 화폐 위·변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라벨' 251만장을 제작해 소상공인이 생산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부착한다.

올해 의류와 가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신발과 장신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벨을 스마트폰이나 소형감지기로 찍으면 생산지와 진품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외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 이른바 '라벨같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우선 우리나라 의류쇼핑의 메카인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내 사업체에서 취급하는 의류와 가방을 대상으로 11월 중 정품인증라벨 부착을 시작한다. 총 수량은 251만장이다. 시는 지난 '14년부터 불법공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제도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자·제조국명, 제조년월 등이 없는 제품 유통이 늘고 있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45% → 51.5% 서울시 불법공산물 유통실태조사 이번엔 배포하는 '정품인증라벨'은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보안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안문자나 이미지를 라벨에 넣는 '형광다중화기술'을 적용했는데 잠상 인쇄나 가변 큐알코드, 리얼코딩 등을 인

식해 정품을 판명하는 방식이다. 소형감지기를 정품인증라벨에 갖다 대면 정품은 소리가 울리지만 가짜라벨은 울리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소상공인이 제작·유통하는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 향상을 물론 동대문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품인증라벨 배포대상은 동대문패션타운 내에서 영업하는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소상공인으로 직접 의류와 가방을 기획 또는 제조하면 된다. 단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수입제품, 위탁판매제품, 안전표시 사항 미표시제품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가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상품기획서 안전기준확인서 등을 검토해 최종 000개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251만장을 시작으로 '21년 500개업체 2,500만장, '23년 1천개 업체 1억장까지 확대·부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겨레신문사와 10일 오후 3시,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8층에서 '공산물 원산지 위·변조 근절을 위해 정품인증라벨 시



범사업을 위한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관들은 원산지 위·변조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정품인증라벨 제작, 라벨보안기술 제공, 라벨 배부 및 사업장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와 불법적인 라벨같이 등으로 국내유통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

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동대문시장에서 "정품인증라벨 개발과 부착이 원산지 위·변조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에 기여해 품질 좋은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동대문시장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숲과 더불어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특별한 공간' 서구, 가원유아숲체험원 준공 기념행사 개최

자연과 교감하며 도전정신·성취감·모험심이 쑥

아이들이 숲과 더불어 성장하고 자연을 벗 삼아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인천 서구에 활짝 문을 열었다. 서구는 원창동 512번지에 위치한 가원숲근린공원에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놀이터인 '가원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 9일 준공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이곳의 주인공인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삭막해져 가는 도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는 부푼 기대감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가원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서

구가 인천시와 함께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원숲근린공원 내에 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정서 함양과 행동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숲체험원이다. 이곳에는 산림지형을 이용한 숲길 산책코스와 물웅덩이,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그물놀이, 외출나무 건너기, 인디언집 등이 설치돼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공간이 마련돼 있어 부모와 아이들의 자연 교감 및 교육의 장으로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어느 곳 하나 막힌 데 없는 숲에서 뛰어놀며 우리 아이들의 꿈도 끝없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녹색 교육의 공간인 유아숲을 오는 2023년까지 12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구로구,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힘쓴다

일자리·주거·문화콘텐츠 등 청년 활동 지원 ... 청년정책 제안 위한 토대 마련해

구로구가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구로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구상하고 거버넌스를 이끄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로구 청년들은 올 한해 일자리, 주거, 문화콘텐츠, 청년의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 job-G'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난 9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전을 실시해 3개 팀을 선정, 프로젝트 별로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달 중 활동 보고 일자리 개선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갖는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구로 청년 주거 A to Z' 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

로 3개 권역 43명을 구로 청년주거에디터로 선발했다. 이들은 권역별 주거생활 취약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주거콘텐츠, 동네이야기, 교육정보 등을 담은 청년주거생활백서를 제작한다. 지난 8, 9월에는 주거 정책·복지·금융 등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로 청년 주거 로드'도 운영했다. 청년문화예술사업 '청년, 구로에서 놀G'를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구로 청년 콘텐츠 기획단을 선발해 관내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홍보, 기획 업무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웠던 문화예술팀 9개를 선정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지난 7월에는 구로청년의회도 출범했다.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달 7일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가졌다. 이달 17~19일에는 G밸리몰 1층 광장에서

청년 주거·문화예술사업 '아트-하우스' 성과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노원구, 올바른 걷기 자세를 돕기 위한 '바르게 걷기 운동교실' 운영

바른 자세, 바른 걷기, 바른 근력운동을 위한 '바르게 걷기 운동 교실' 운영

서울 노원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걷기와 운동을 위해 권역별 근린공원과 산책로에서 바르게 걷기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걷기는 누구나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속 건강속 관리지만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발목과 무릎에 무리를 주거나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또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확대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으나 잘못된 사용법 등으로 몸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구는 바른 자세, 바른 걷기, 바른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돕고자 한다.

수업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화, 목, 토 12시~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장소는 권역별 상계근린공원, 중랑천길 창동교 아래, 성서대 앞 당현천 바닥분수, 한내근린공원,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광장 총5군데다.

운영프로그램으로 바르게 걷기 교육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정각에는 진행한다. 대한걷기연맹 걷기지도자가 걷기 시 준비운동, 걷기자세 교정, 질한별 걷기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걷기 교육 참석 후에는 각 장소에 설치된 체험부스에서 아발 수 있다. 상담사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진단을 제공한다. 끝으로 노원구 보디빌딩협회 소속 지도자들이 공원 내 근력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준다.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현

천 구간은 바르게 걷기교실만 운영하므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 신규가입이벤트 및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걷는 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걷기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 3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걷기활동가 신분증을 배부해 현재 걷기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바르게 걷기 운동 교실에 참여해 올바른 걷기와 운동을 배워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 작은 학교 아이들의 반란

문성중·자인중,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



경북교육청은 김천 문성중학교와 경산 자인중학교가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에서 예선 입상과 동시에 결선에 진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 창업동아리들의 사업설명회와 인터뷰, 활동 결과물 등을 통해 우수한 동아리를 선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13개 동아리가 출전했으며 총 2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중학교 진출팀을 배출한 지역은 경북과 서울 단 두 곳이다. 특히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인 경산 자인중의 실적이 돋보이고 있다. 자인중 창업동아리는 '신호등 달걀 보관함'으로 결선에 진출했다. 신호등 달걀 보관함은 안전한 먹거리와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소비 패턴을 고려한 제품으로서 달걀 보관함에 LED 신호등이 달린 타이머를 부착해 보관 중인 달걀의 남은 유통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천 문성중 창업동아리 LED는 코로나19의 2차 감염과 일회용 비닐장

갑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UV 자동 안심 살균기'로 본선에 진출했다. 친환경 UV 자동 안심 살균기는 공동 시키구를 자동으로 인식해 UV로 소독하는 살균기로서 탈착식 기능, 살균력 극대화 및 환경 피해 최소화, 저전력 설계로 효율적인 전원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이 동아리는 지난해 '분실 방지 눈키패치'로 결선에 진출해 우수상과 크라우드펀딩 상을 받아 청소년창업에 대한 저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재훈 군은 "팀 동료들의 협력과 선생님의 지도로 좋은 결선을 보아 감사하다. 친환경 UV 자동 안심 살균기'가 많이 알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도

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동아리는 이미 장려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11월 결선에서 대상에 도전한다.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를 맞아 도내 학생들의 진로 개척 능력과 창업가정신을 키우기 위해 창업 체험교육 연구학교와 지역창업 체험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직업 세계 변화로 인해 창업 능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가치 창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2020년 영양읍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 개최

경북 구미시 구평동 별빛공원에 판촉행사 실시



영양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간 경북 구미시 별빛공원에서 영양군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구미시 인동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전 홍보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미 인동동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영양읍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건조양추 1,500근을 비롯해 고춧가루, 고추장, 영양벌꿀, 사과, 배, 초화주, 건나물, 과실즙 등 약 2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는 영양군의 우수한 자랑거리이자 전국 최고 영양고추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장을 찾은 구미시 인동동 주민들은 "영

양고추를 비롯한 품질 좋은 영양군 농·특산물을 본격적인 김장철에 장만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판촉행사였으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실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추를 비롯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도시 소비자층을 확보해 더 많은 농가에게 판로를 이어주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북교육청,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강화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부 합동 현장 점검

경북교육청은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3 및 전공과, 현장실습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도모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고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 2명, 도교육청 2명, 한국장애인개발원 1명으로 구성된 훈련사업체에 대한 직무 배정, 훈련시간, 휴게 시간 등 장애학생 현장실습 현황, 장애인고용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사업장 안전 관리와 훈련 직무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장

애학생의 직업훈련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실습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상태 점검표, 마스크 착용, 방역물품 지급 내용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 9일에는 고령 성요셉직업재활센터에 도교육청과 교육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합동으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현장 점검을 했다.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는 도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고령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장애인복지관 등 5개 기관이 연계해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학생이 일반 사업체에서 집중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명의 장애학생이 직무평가를 통해 지난 10월

부터 3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포함시장에인종합복지관과 도교육청 합동으로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사업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요셉직업재활센터 관계자는 "현장실습 학생들이 종이 박스와 면장갑 제조 과정에 소분, 분류, 포장 작업을 능숙하게 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사업체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용은 어렵지만, 여건이 좋아지면 꼭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지역 사회에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 현장중심의 실습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김천시, 2020년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완료

도심 속 소규모 유휴 부지를 시민의 휴식,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김천시는 올해 6월부터 11월에 걸쳐 전국 5개 권역에서 대학생이 참여해 정원을 조성하는 2020년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 총 5개 권역 25개소 중 경상도 권역에서는 김천시가 선정돼 5개소의 정원을 6월에 시작해 11월까지 5개월간 학생참여 정원을 조성했다. 이 중 우수작품에 대해 11월 17일 시상식에서 대상 1팀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2팀에 산림청장상, 장려상 3팀에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정원실습은 도심 속 소규모 유휴 부지를 이용해 정원분야 취·창업자의 실습 공간으로 활용되어 정원분야 진출 희망자와 전공자들의 현장 밀착형 정원 실무분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도심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전액 국비로 진행했으며 지원반

은 사업비 중 대부분이 정원조성을 위한 재료비였으며 참여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직접 시공해 정원을 조성했다. 지난 6월 16일에 수도산자연휴양림 세마나실에서 40여명의 대학생, 교수 및 정원작가 등이 참석한 김천지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울곡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7월 4일 정원실습 집중교육 및 8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8월말부터 김천시 5개의 대상지의 정원조성 공사를 진행해 11월초 공사를 완료했다. 대학생 참여팀은 김천시 울곡동 왕버들공원, 무궁화동산, 속구미조경지, 자산동변화마을 2개소 등 김천시에서

제공한 5개소 장소에 정원 디자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장조사와 주민면담을 통해 컨셉구상, 설계 및 시공까지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원분야 전문가를 준비하는 청년·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 효과와 더불어 지역 내 생활 밀착형 정원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원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원 참사랑 실천

영양군과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지난 6일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회원 3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여성지도자로서 농가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인 농촌 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면서 평소 관내 환경 정비 및 불우 이웃 돕기,

여러 봉사 활동 등 영양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학습조직 단체이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려 화분 84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및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 72개를 준비해, 읍면 별로 반려 화분 14개, 이불 12개를 회원들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준비한 회원

들과 최민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생활개선회는 다양한 지역 봉사에도 함께 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영양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요즘 관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나눔을 해주시는 생활개선회에 감사드리며 정성들여 준비한 물품들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고추

사이스

검색창에 '사이스' 물을 검색하세요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공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스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 구축

100원 택시-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 취약계층 이동권 향상·교통업계 활성화

화순군에서 버스비를 1000원만 내면 화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가 운행되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000원 버스는 오지 마을과 임신부 등을 위한 '맘 편한 100원 택시'와 함께 노인, 학생 등 농촌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리와 교통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000원 버스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원 택시 이용 대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행 등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시책은 민선 7기의 대표적인 교통복지 공약으로 교통약자는 물론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1000원 버스는 화순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요금을 성인 기준 1000원을 내고 이용하는 버스로 단일요금제를 적용한다. 운행 구간이 화순 지역이면 노선, 이용 거리와 관계없이 똑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은 현금 기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나머지 요금은 군이 보전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30분 이내 1회 무료 환승

을 할 수 있다. 다만, 화순 지역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 인근 지역까지 이동할 때는 일반 농어촌 버스 요금이 적용된다. 군은 1000원 버스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를 지원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 취약 지역 마을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행해 왔던 '100원 효도택시'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100원 효도택시' 이름을 '맘 편한 100원 택시'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임신부와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100원 택시는 이용대상 마을, 운행 횟수, 이용객과 예약액 등이 꾸준히 증가했다. 지원 대상이 2014년 37개 마을 534명에서 올해 77개 마을 1328명으로 증가했고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이용객이 38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상자와 운행 거리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리도 향상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운행한 장애인 콜택시를 내년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장애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해 운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6대로 내년에도 1대를 증차할 예정이다.

예산과 운행 횟수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2만여 건이 넘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대 운영으로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리와 교통복지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충곤 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 맘 편한 100원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교통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3대 교통복지 모델이 안정적인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담양 창평향교, 국가지정 보물 된다

창평향교 대상전·명륜당,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담양군은 담양군 고서면 교산리에 있는 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창평향교의 대상전과 명륜당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주제연구를 통해 전국의 서원과 향교 430여 곳 가운데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0곳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고 여기에 담양 창평향교의 대상전과 명륜당이 포함됐다. 창평향교는 경사면에 위치한 좁은 입지로 인해 전형적인 향교 건축물의 배치구조에서 벗어나 대상전과 명륜당, 동재, 서재

가 "자형으로 배치된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상전은 화려한 단청과 공포를 갖춘 외부와 단순한 목구조와 백색으로 이루어진 내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명륜당은 전면부가 뺀 뿔뿔이면서 후면은 조망권과 기후확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판장문을 설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창평향교 대상전과 명륜당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건축적 독창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창평향교 대상전과 명륜당은 30일간의 지정 예고로 수렴된 의견 검토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지정 절차 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조기석기자



광주 서구, LH 쌍촌주공아파트 케어안심주택 조성 현장 방문

화장실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등 고령자 맞춤형 집수리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6일 쌍촌주공아파트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조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쌍촌주공 케어안심주택 조성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 노인가구, 병원 퇴원 노인 등에게 주거, 보건,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주거지원사업이다.

서구는 LH와 케어안심주택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쌍촌주공아파트 100여세대를 집수리 한 후 고령친화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집수리는 미끄럼 방지,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바 설치, 거실 문턱 제거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진행됐으며 LH, 쌍촌주공관리사무소, 쌍촌종합복지관, 상무2동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로 이루어졌다. 서구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대



상 어르신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집수리는 집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내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허석 순천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막바지 총력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 등 방문, 국회 증액사업 반영 요청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소병철, 서동용, 이원욱, 김승남, 김희재, 허영 의원 등을 직접 만나 2021년 국회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석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2021 NEXPO in 순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박람회 개최 및 운영비의 필요성을,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의 시급성을, 서면 선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4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 증액사업 4건 모두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통과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서동용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임



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상정되면 최종예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국회 증액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29일에는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기획재정부 예산담당부서를 방문해 국회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2일에는 허석 순천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등 막

바지 총력전을 펼친 바 있다. 허석 시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은 내년에도 이어져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 함께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영광군, 예비 귀어인 대상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운영

12월 1일까지 한 달간 직접 경험하며 귀어 준비

영광군은 "백수 구수어촌계에서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예비 귀어인 9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영광군, 전남 귀어귀촌 지원 센터 등이 함께 진행하며 참여자는 지난 9월 전남 귀어의 날 행사와 10월 귀어 스톱엑스포에 참석한 도시민을 대상

으로 모집했다. 예비 귀어 희망자들은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으며 한 달간 머무르며 어선어업, 맨손어업, 엽전견학 등 현장 체험과 맞춤형 귀어 상담 및 전문가 교육을 받게 된다.

체현 첫날인 2일에는 구수 어촌계에서 환영 현수막을 게첨해 훈훈한 감동을 줬으며 대신항, 해안도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돌아보며 마을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인사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광에서 한 달 살기에 참가한 예비 귀어인들은 "귀어 준비를 어떻

게 시작할지 답답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이러한 기회를 준 전남도, 영광군, 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영광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이 어촌을 이해하고 귀어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라며 "한 달 살기 체험 종료 후 희망자들에게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목포시, 'Fall in 목포 공연여행' 뜨거운 호응 속 성료

철저하게 방역지침 준수하며 펼친 화려한 공연, 자진 시민에 활력 선사

목포시는 지난 6일 평화광장 야외 무대에서 가을에 빠지다 ♡ 목포에 빠지다 'Fall In 목포 공연여행'을 뜨거운 관심과 안전한 방역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는 지역 대표 축제인 목포항구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진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페인터즈, 셰프, 오 당신이 잠든사이 등 흔히 접할 수 없는 뮤지컬과 년버블 퍼포먼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인터넷 관객을 운영해 공연 중 인터뷰를 진행해 색다른 재미가 됐다는 평가이다.

행사를 무료로 지원한 사)한국공연관광협회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품격 공연단체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한국관광공사와 '힘내라 대한민국 공연여행'을 진행 중이다. 시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번 공연을 추진했다.

실외 공간 관람객수 제한을 위한 행사장 차단, 출입구 방역 공간 운영, 공연 중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



인을 전개하며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유도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안전하게 공연을 함께 해준 관람객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공연이 코로나 19로 일상의 피로가 누적된 시민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숲에서 뛰놀며 행복한 아이들, 꿈놀자학교 숲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곡성에는 아주 특별한 학교가 하나 있다. 이곳에서는 곡성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을을 놀이터이자 배움터로 재밌게 놀면서 지역 안에서 행복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의 연결을 지원한다.

바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 놀이교육혁신으로 추진 중인 “꿈놀자학교” 이야기이다. 지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자연에서 놀면서 미래 인재로 키운다는 꿈놀자학교의 야심찬 프로그램이다. 2019년 주말 가족체험형으로 시작된 숲교육은 반구정트리클라이밍·제월섬오리엔티어링·삼인동알렉산드라테크닉과 민강유아숲 1호인 섬진강도깨비마을숲체험 등 곡성의 아름다운 숲 곳곳에서 실시됐다.

실시되자마자 곡성 뿐 아니라 타 지역 학부모들의 반응에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2020년에는 이를 학교와 마을 교육과정으로 연계시켰다.

곡성 관내 초등학교 마을교육과정으로 5개의 숲 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해 곡성 전체 초등학교에서 총 70차 수업을 신청해 80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마을교육과정으로 운영된 숲교육은 곡성군 입면 소재 제월섬에서 진행한 “트리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 “뱃줄놀이”와 고달면 소재 “섬진강도깨비마을 숲체험”,

옥곡면 소재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 실시한 “미술관에서 놀자”까지 총 5개이다. 이는 단지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을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자연을 만지고 몸으로 느끼며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 감수성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배움을 전달하고 있다. 숲교육은 주말에도 계속됐다. 주말 꿈놀자학교 숲교육은 이미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서 매회 10분도 안되어 마감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초여름과 가을 두차례 진행된 팝업뱃줄놀이 “상상파티”는 하루만에 500명의 인원이 몰리며 숲 놀이터로써 입지를 자리매김했다. 상상파티 참가자들은 “곡성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수 있고 부모들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 트리클라이밍은 아보리스트와 함께 뱃줄과 매듭을 이용해 나무에 오르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도전감, 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는 기분을 만끽하는 숲체험이다. 총 8회 진행된 트리클라이밍은 곡성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와 제월섬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으며 숲 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다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11월 8일 을

해 마지막 숲교육으로 진행된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독도법을 배우고 숲을 뛰어다니며 목표지점을 찾아 빠르게 돌아오는 숲체험으로 체험설 여거지를 누비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가을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을교육과정에 참여한 입면초 이지는 교사는 “처음에는 숲교육에 반신반의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기대 이상이였다.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교과와 연계한 내용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교육이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고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홍보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잘 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는 숲교육을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녀를 데리고 언제든지 놀러갈 수 있는 학교놀이터도 구상중에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유년시절의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꿈이 있는 지역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들녘경영체 논콩 재배단지 첫 수확

남원 최초 “논콩 재배단지 18.1ha 57.9톤 첫 수확” 식량산업 경쟁력 UP

남원시에서는 고품질쌀 적정생산과 식량산업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공동생산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가소득증대와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들녘경영체 단지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개 단지 4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단지조성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재, 현장수매비 등을 지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과 농촌 소득증대 기반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민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59.2kg로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쌀

전업농 등 현장 토론회와 권역별 시험재배 등을 실시, 논콩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노력을 꾀한결과 최초 단지를 조성하게 됐다. 농업회사법인 새싹에서는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다섯 농가에 논콩 재배단지 18.1ha를 조성, 6월 중순부터 파종, 금년 최악의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평년을 웃도는 57.9톤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다. 시는 대산면 논콩재배단지 18.1ha와 보절면 춘향팔 재배단지 24ha로 전체 42.1ha의 논 타작물 들녘경영체 조성을 계기로 앞으로 미래 식량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예정이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남원의 특성을 살린 고품질쌀 생산과 살기 좋은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논콩, 팥 등 논타작물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의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 자체 들녘경영체 지원에 논 타작물 재배를 획기적으로 도입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종철/기자



원년멤버 ‘슬기둥’의 완주풍류 음악제 감동 속에 성료

완주풍류학교서 공연... ‘바람따라 완주따라’ 초연 호응

원년멤버 ‘슬기둥’과 함께한 완주풍류 음악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7일 완주풍류학교에서 열린 원년멤버 ‘슬기둥’의 완주풍류 음악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슬기둥 원년멤버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뭉쳐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슬기둥의 대표곡 ‘산도깨비’, ‘꽃분네야’, ‘소금장수’, ‘그대를 위해 부르는 노래’, ‘그저너 무렵부터 새벽

이 오기까지’, ‘숙대머리’, ‘상주함창’에 이어 완주풍류공연단의 ‘신뱃놀이’, ‘축제’, ‘호남산조춤’, ‘남도굿거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완주관광브랜드 슬로건인 ‘바람따라 완주따라, 완주’를 바탕으로 슬기둥이 직접 작사·작곡해 완주를 노래한 ‘바람따라 완주따라’를 초연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기 힘든 무대에 많은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관객 인원제한과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음악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했다. 문정일 완주풍류학교장은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귀한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및 관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완주풍류 음악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완주풍류학교는 매주 국악공연 및 체험을 통해 여러 군민들과 이용객들께 국악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철/기자

전주 최우수 기록물에 명륜학원 졸업사진

시, '제9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명륜학원 졸업사진·시험 답안지 등 최우수 기록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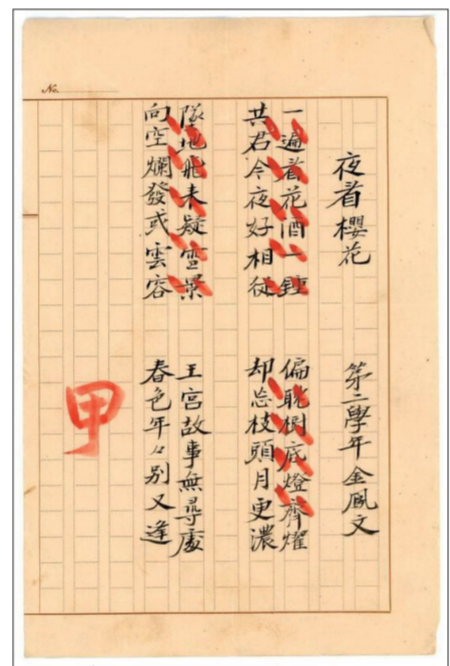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성균관에 설치했던 유교교육기관인 명륜학원의 졸업 사진이 전주시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기록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9월 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향교, 서원을 비롯한 전주의 유교문화 기록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9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김경순 씨가 기증한 선친 답재 김봉문 선생의 명륜학원 졸업사진과 시험 답안지 등을 최우수 기록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명륜학원 기록물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희귀성, 진본성, 대표성 등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명륜학원 졸업사진은 한반도 지도 위에 졸업생들의 사진을 출신 지역에 맞게 배치한 게 특징이다. 당시 전라도 유생은 답재 김봉문과 보정 김정희 등 2명이 있었다. 졸업사진 외에도 답재 김봉문 선생이 작성한 명륜학원 수학 시절 한

시 과목 시험 답안지와 전주 북중학교 재직 시절 학생들과 찍은 한벼루 사진 등도 기증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완산지, 전북교임록 등의 도서류 근현대 전주 향교에서 실제 사용한 말, 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실제 사용한 성화봉과 대회 유니폼, 기념품 등 박물관 개인 의 인생사와 당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언장과 같은 문서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공개됐다.

이밖에 전주 객사 풍패지관 현판 탁본 1967년 전주향교지 1960년대 전주 기림출판사 출간 김현 평문집 ‘존재와 언어’ 외 3권 1968년 전주고대부속유치원 졸업기념 앨범 등 전주와 관련된 희귀 자료들도 나왔다.

시는 소장자료 최대 50만 원까지 기증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중하게 간직해 온 개인의 유산을 시의 기록으로 남도록 기증한 시민에 대한 예우와 기증문화 확산 차원에서다. 시는 오는 20일 ‘전주시민 기록포럼’을 열고 시민 기록의 가치 확산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



김송일/기자

전주시 청소년 ‘2020년 소통 ON&OFF’

지난 7일 전주시 10개 청소년시설이 공동주관한 청소년 기념행사 열려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덕진문화의 집 등 전주지역 10개 청소년시설이 공동주관한 ‘2020년의 소통 ON&OFF’ 기념행사가 지난 7일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행사와 2부 문화공연, 3부 체험부스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개회선언문으로 문을 연 1부 식전행사에서는 참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현장을 함께 낭독했으며 우수청소년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수청소년상을 받은 장성우 학생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 힘들었는데, 청소년 문화행사와 청소년수련시설 체험부스로 마음의 치유를 받아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부 청소년 문화공연에서는 참여한 청소년들이 간 갈고 닦은 댄스, 수화, 보컬 등의 실력을 뽐냈다. 이어진 3부 행사에서는 소통을 주제로 한 타로상담 나이에 얽서 쓰기 디지털성범죄예방 인식개선 퀴즈쇼 소통 토크를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돼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됐다. 안이순 덕진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은 “이번 전주시청소년시설연합 청소년기념행사 ‘2020년의 소통 ON&OFF’는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갈

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수 전주시청소년시설협의회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청소년기념 행사가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몇 번 연기됐지만, 청소년 기념행사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



양구시래기 수확작업 금주까지 완료 예정

밭에서 수확한 후 덕장에서 건조작업 돌입

양구의 겨울철 대표 농·특산물인 시래기 수확작업이 이번 주까지 계속된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래기 수확작업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돼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다.

요즘 수확되고 있는 시래기는 지난 8월말 감자를 수확한 후 파종해 60여 일간 밭에서 자란 것들로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돼 이달까지 수확을 끝내고 덕장에서 건조된다.

건조된 시래기는 빠르면 12월말경부터 양구명품판과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해 1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양구지역에서는 약 220농가가 282.3ha에서 450여 톤의 시래기를 생산해 95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여름 역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비가 계속되면서 감자 수확도 지연됐고 감자 수

확 후 파종되는 시래기도 영향을 받아 파종시기가 늦어지면서 파종을 포기한 농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래기 파종 시기와 파종한 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 시래기의 발아와 생육이 부진해 예년보다 수확작업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재배농가와 수확량, 예상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시래기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시래기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 연말까지 군비 1억2100만여 원과 자부담 1억6400만여 원 등 총 2억86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은 시래기 파종기 지원, 포장재 지원, 운반상자 구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래기 파종기 지원은 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동등하게 1천만여 원씩 총 2100만여 원을 투입해 71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에 따라 양구군은 파



종기 지원을 가장 먼저 시행해 현재 완료됐다. 포장재 지원은 군비 1억 1700만여 원과 자부담 1억7600만여 원 등 총 2억9400만원을 투입해 시래기 출하 및 유통용 포장재 30만 매를 공급하는 내용이며 현재 진행 중이다. 운반상자 구입은 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동등하게 약 2600만 원씩 총 5100만여 원을 투입해 시래기 수확용 플라스틱 운반상자 6700여 개를 공급하는 내용이며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양구군은 군비 4500만여 원과 자부담 2400만여 원 등 약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5대의 시래기 스티기를 지원했다.

또한 군비 1억4400만여 원과 자부담 2억1500만여 원 등 약 3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장재 30만5천여 매와 운반상자 약 7천 개도 지원했다.

최만식/기자

금산군, GAP인증인삼 전체농가 확대 박차

안전성 입증, 공동선별장 운영 등 전폭 지원

금산군은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GAP인증인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GAP인증인삼 사업은 올해 10월 기준 347개 농가가 GAP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325만㎡에 달하며 예상수확량은 1890t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GAP인증인삼 확대를 위해 관내 인삼경작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기준 전체 인삼농가수 대비 32.5%가 GAP인증인삼으로 인증 받았다.

점진적으로 인삼재배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GAP인증 인삼의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GAP인증 인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난 4월 금산국제인삼연구소와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GAP인증 확대 기반조성 지원

원, 공동선별장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GAP인증 인삼 채굴 및 GAP선별시설 이용 농업인 대상의 GAP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공동선별 및 선별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AP인증인삼과 일반인삼 농가소득의 차이는 GAP인증인삼 출하에 대해 가격결정 금액의 5%를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균형발전사업 2단계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GAP인증인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규격 유통시스템에 따른 시장 이미지 개선, 생산자 조직화, 지역단위 조직 등 지속가능한 GAP인증 체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조병옥 음성군수,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적극 발굴” 주문

조병옥 음성군수는 9일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군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매진하라”고 군청 전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부처 예산안이 매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는 예산편성 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업발굴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병옥 군수는 특히 “우리군 현안사업을 충북도 전략 사업으로 반영하고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주환경 개선과 5대 신성장동력산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음성군은 지난 4일 개최한 2021~2022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에서 우수용품 시험검사와 소견, 미래 특장차 특수환경 신뢰성 센터 구축 등 56개 사업, 2천919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조병옥 군수는 또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 도출, 개선 방안 강구를 위해 대형사업장 위주로 현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부서장들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각종 공사 현장은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확인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도 조병옥 군수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음성군 도시 이미지 연상 키워드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우리군 정체성을 대표하고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참여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병옥 군수는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국도비 3천900만원



최재은/기자

을 포함해 총 1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 소진에 대비해 군비 1800만원도 별도로 확보해 지급하고 있다.

예산군,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대상

예산군은 11월 9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충청남도 등록예술인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1월 4일 기준, 충남도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현재 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신청 마감일까지 증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문화예술과 관계 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고 이다. 군 관계자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문화예술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생계지원금이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홍성군, 코로나 위기 속 행정성과 빛났다

홍성군이 올해 92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473억원을 확보하고 30개 행정평가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우수한 행정성과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군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며 생활SOC, 일자리,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충남혁신도시 지정도시로서의 기량을 공고히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사업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3년간 30억원 충남도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2건 10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년간 28억원 축산악취 저감 사업 5억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활성화 지원 사업인 도시락 왓슈,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인 '1 신나 YOU 떴다 놀이특공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군 그린카페, 청소년 명동놀이거리 조성 사업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대거 선정되며 훌륭한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 설치 운영 중인 아동통합지원센터와 2024년 완공 예정인 가족센터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군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 충남혁신도시를 이끌어갈 청년들



을 위한 일자리 공모사업 14개 선정에 이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더했다. 이밖에 농림부 시범추진사업인 ‘농촌협약’ 5년간 3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억원 문화재 활용 사업 9억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및 전통시장 개선사업 8억원 등 굵직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발전을 견인했다.

더불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대한민국건강도시상 대상,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 전국 1위,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우수상, 등 올해 30개 부문의 행정평가에서 수상하며 4억 4700만원의 인센티브를 함께 확보했다.

고정화/기자

특히 김석환 홍성군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명성에 맞게 2년 연속 거버넌스 지방정리대상 수상의 영예에 이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며 지역으로 해소 및 지역발전 공헌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김석환 군수는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뛰어준 900여명의 공직자 덕분에 우수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에 다가올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10만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조길형 시장,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역 ‘더 깐깐하게’

출입 전 발열 체크를 통한 출입 통제 등 철저한 대응 강조

조길형 충주시장은 9일 현안업무회의에서 지난주 구리시 확진자의 충주시청 방문과 관련해 시민들이 감염병 불안감 없이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재점검을 주문했다. 조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다행히도 접촉자 모두 음성이지만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청사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청이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폄하되고 시민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출입 통제와 청사 내 방역소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청사 출입 전 발열 체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민원인 접촉이 많은 부서 등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솔선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연립, 원룸 등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투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이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의 주체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상습적인 투기 지역은 고정형 CCTV를 설치해 위반자 적발 등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외의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아동의건강안전한보육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래의 인구증가 도시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지역 보육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했다.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임비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식비를 보완하고자 도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시비 예산을 투입, 아동당 매월 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으로 40개소의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양질의 급식제공을 받고 있으며 건강도모 등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타지역으로의 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을 유튜브 생중계와 줌을 활용해 실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비대면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보육교직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80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확충했다. 여아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신규 개소해 부모의 이혼이나 아동학대로 보호자와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능력 향상과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했다.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간을 마련했다.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센터의 기능은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이다. 2019년에 김제시에 1호점을 개소했으며 2020년 추가 돌봄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돌봄 기능 강화와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시를 건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지원을 통해 관내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 거주 영유아 1,350여명에게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을 통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낮은 급·간

비대면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홍보의 변화-유튜브 활용 전략', '연택트시대의 어린이집 운영전략', '변화하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미래전략 특강으로 진행됐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11개소 300여명의 아동에게 매월 운영비,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확충했다. 여아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신규 개소해 부모의 이혼이나 아동학대로 보호자와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능력 향상과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했다.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간을 마련했다.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센터의 기능은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이다. 2019년에 김제시에 1호점을 개소했으며 2020년 추가 돌봄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돌봄 기능 강화와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시를 건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람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지급 및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5억원을 통장계좌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며 지역경제의 위축된 소비심리 촉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 소연숙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 가는데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김현태기자

영천시민행복아카데미, 거리의 치유자

정혜신 박사 온라인 특강

영천시는 오는 11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올해 두 번째 시민행복아카데미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사 초청 특강으로 시민들의 교양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행복아카데미'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통과 공감 학습'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거리의 치유자 정혜신 박사의 모두가 힘이 될 때 가장 위료가 되는 공감 '당신이 옳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상대

를 위한 공감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마음의 허기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청 방법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의 유튜브에서 '영천시' 검색 후 '별별영천 TV'를 통해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13일까지 3일간 '별별영천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각자의 힘든 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치유해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아산시 박찬희 주무관, 43회 국토교통부 지적세미나 최우수상 수상 순천시 미나리재배 정지환 농가,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수상

아산시 토지관리과 박찬희 주무관이 지난 5일 열린 제43회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세미나에서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LX 한국정보교육원에서 개최된 지적세미나는 지적분야 미래 발전전략 모색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세미나로 아산시는 충남도 대표로 사례를 발표했다. 토지관리과 박민식, 박찬희 주무관 공동연구로 진행된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활용 방안'은 민원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1회 방문만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지적·세무 행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발표 후 심사위원분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지목변경 신청과 지목변경 통보,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재산정 신청, 취득세 부과 및 납부까지 최장 6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원이었지만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에서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만 하면 빠르게 민원

을 해결할 수 있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은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적구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후 중앙대회에 진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제43회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세미나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으로서 지적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됐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아산시 토지관리과에서는 최고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다양한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우리시의 선진 지적행정업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원예·특용작물 분야, 전라남도 최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순천시 도사동 미나리 재배농가 정지환씨가 9일 개최된 제25회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원예·특용작물분야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다.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정지환씨는 2007년 순천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등을 이수하고 기존 관행농법을 벗어나 발효액, 토착 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제조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친환경 미나리재배를 확산하는데 선도자 역할을 했다.

특히 미나리 수확·운반에 필요한 미나리 운반카 등 특허 2종을 개발해 농작업 현장에 저가로 보급해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갈수기 지하수원 부족, 염분 검출 등으로 2017년에 미나리 이사 전 맑은물 공급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정 개발 경험 및 전문지식을 제공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지역 주



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지환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농협, 부산, 서울 등 대도시와 학교급식 납품 등 친환경미나리 판로를 다양화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정지환씨가 소속된 순천만정경미나리 작목반에서

도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열정을 다하는 농업인이 수상했고 정지환씨도 선도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 성장 활력도시

서울시, 내방에서 즐기는 아시아 최대 만화애니메이션축제 'SICAF2020' 개막

91개국·2206편 중 본선진출 69편 '애니메이션 영화제' 네이버 시리즈온서 골라본다

아시아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축제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인생 축제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가 11.11~15 5일 동안 온라인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SICAF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SICAF'는 만화·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창작자, 산업관계자가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축제다.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서울시와 SICAF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오프라인 축제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있으면 클릭, 터치 한 번으로 모든 콘텐츠를 내 방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다. 온라인의 특성을 살린 VR 전시관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SICAF 온라인 놀이터'다. 'SICAF2020'은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 시리즈온, 네이버TV,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화·애니 팬들을 찾아간다. SICAF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국내외 작품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는 91개국, 2,206여 편의 작품 중 치열한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24개국 64편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상영한다.

애니메이션 전성기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우리나라 대표 성우들이 대거 참여하는 '성우데이'는 네이버TV 독점 공개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명탐정 코난의 강수진 성우, 뽀로로의 패티 역 정미숙 성우, 누적 조회수 45억 뷰를 달성한 네이버 인기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신의 탑'의 주인공 김명준 성우 등이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집에서 VR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은 SICA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최근 드라마 제작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 네이버 인기 웹툰 '정년이'를 주제로 한 전시, 한국 만화의 거장故 임정규 감독 회고전 등 총 4개 전시가 마련됐다.

올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영화제 성우데이 워크숍 온라인 전시관 부대행사 등이다.

애니메이션 영화제: SICAF 기간 동안 본선 진출작 총 69편 중 온라인 상영에 동의한 64개 작품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제 전체 상영작 정보 및 관람 가격은 SICA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손쉽게 골라보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 초청작은 추억의 명작 애니메이션 '2020 우주의 원더키디'의 제작과정을 담은 '2020 우주의 원더키디 특별영상'이다. 또 우크라이나 최대 독립단편애니메이션 영화제인 리볼루션 현대 애니메이션&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수상작 등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전 세계 애니메이션도 있다.

성우데이: 인기 성우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애니메이션 팬들을 열광시키는 SICAF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11.14~15 양일간 성우데이 전 일정이 네이버 TV를 통해 독점 생중계된다. 성우들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녹음 비하인드 스토리, 팬들의 사진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11.14: '성우데이1: 꿈, 희망, 용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명탐정 코난의 강수진 성우와 문선희 성우, 내 사랑 유미의 김장성우, 뽀로로의 패티 목소리 정미숙 성우, 세일러문과 포켓몬스터 '지우'역을 맡았던 최덕희 성우가 출연한다.

11.15: '성우데이2: 신의 탑에 오라!'도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누적 조회 수 45억 뷰 달성, 네이버 인기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신의 탑'의 주인공 김명준, 심규혁, 양정화, 최낙윤 성우가 참여한다.

당신을 매혹시키는 애니메이션 음악과 스토리 워크숍: 최용원 음악감독, 박지연 시나리오 작가가 애니메이션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과 움직이는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음악에 대해 소개한다. 네이버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13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SICAF 온라인 전시관: 집에서 VR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한 VR 전시관이다. 기획전 3개와 특별전 1개로 이뤄진 총 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 '판을 벌이다: 정년이'는 네이버 인기 웹툰 '정년이'를 통해 여성의 연대를 조명하는 전시다. 또 웹툰 한 장면을 재현하는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전에 모집한 신청자와 웹툰 캐릭터가 가상 혼례를 재현하는 내용이다. '정년이'는 1950년대 유행했던 여성극극 여성극극: 1948년~1960년대 초까지 존재한 대중 공연 장르. 단원은 모두 여성으로 여성 단원들이 남성역을 포함해 모든 배역을 맡음단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여성 배우들은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열성적인 팬들 특히 동성의 여성 팬들이 많았다. '정년이' 11화에서는

당신을 매혹시키는 애니메이션 음악과 스토리 워크숍: 최용원 음악감독, 박지연 시나리오 작가가 애니메이션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과 움직이는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음악에 대해 소개한다. 네이버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13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SICAF 온라인 전시관: 집에서 VR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한 VR 전시관이다. 기획전 3개와 특별전 1개로 이뤄진 총 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 '판을 벌이다: 정년이'는 네이버 인기 웹툰 '정년이'를 통해 여성의 연대를 조명하는 전시다. 또 웹툰 한 장면을 재현하는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전에 모집한 신청자와 웹툰 캐릭터가 가상 혼례를 재현하는 내용이다. '정년이'는 1950년대 유행했던 여성극극 여성극극: 1948년~1960년대 초까지 존재한 대중 공연 장르. 단원은 모두 여성으로 여성 단원들이 남성역을 포함해 모든 배역을 맡음단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여성 배우들은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열성적인 팬들 특히 동성의 여성 팬들이 많았다. '정년이' 11화에서는



한국배우 故 조규영 선생님이 결혼해 달라고 조르는 열성 팬과 함께 덕시도를 입고 웨딩촬영을 했던 실화를 웹툰 스토리에 녹여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SICAF2020에서는 웹툰 캐릭터와의 가상 혼례를 재현한 모습을 14일 네이버 TV, SICAF 유튜브로 공개한다. 사랑&미움을 주제로 한 기획전 '당신의 심장은 두 번 뛰다' 전은 열세 살의 첫사랑 이야기를 감동과 여운으로 풀어낸 출판 만화 '열세 살의 여름', 인간적인 한국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웹툰 '아티스트'를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전시다. 웹툰의 주요 장면을 재현한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세일러문'의 최덕희 성우와 '신의 탑' 심규혁 성우가 사회자로 참여해 사랑과 미움에 대한 다양한 시청자들의 사연을 들려준다.

사랑과 미움을 주제로 한 보이는 라디오는 12일 13일 네이버 TV, SICAF 유튜브로 공개한다. '영원한 마루치: 임정규 감독 회고 전'은 '마루치 아라치'로 유명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거장 故 임정규 감독의 생전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해 관객들이 작업 환경을 엿볼 수 있다. '색, 다른

만화 전'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독립만화 작가들의 작품과 기념품을 소개·판매하는 전시다.

만화 작가와 지망생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색, 다른 만화 전'의 큐레이터와 독립출판만화계의 대표 성인수 작가의 대담 생중계를 11일 네이버 TV, SICAF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독립만화작가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는 12일 SICAF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된다. 이밖에도 애니메이션, 웹툰 속 캐릭터의 관심을 관심 전문가와 함께 읽어보는 'SICAF 관상카페', 인기 스톱모션 유튜브 '셀프어쿠스틱'과 함께하는 스톱모션 제작기 영상 등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부대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모두에게 심리 방역이 절실한 시기"며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24시간에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SICAF 온라인 놀이터에서 만화·애니메이션을 통해 잠시나마 '코로나블루'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바람타고 오신 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오후홀에서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바람타고 오신 님' 공연을 진행한다. 영남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김현호와 대구·경북의 국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전승과 계승 그리고 현대인의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시도를 해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악 관현악단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한민국의 음악가 겸 국악 연주자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 장사익과 경기민요의 대가이자 국민 명창 김영일, 속이 뽀뽀리는 판소리 실력으로 인정받는

국악인 남상일 엄선민 소울무용단, 노리광대가 함께하는 대형 크로스오버로 가을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국악관현악 공연이다. 우리 전통문화를 다양한 장르로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바람타고 오신 님'의 공연을 통해 국악이 고전적이어서 아니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의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바람타고 오신 님'은 5세 이상 관람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R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확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인천 중구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공연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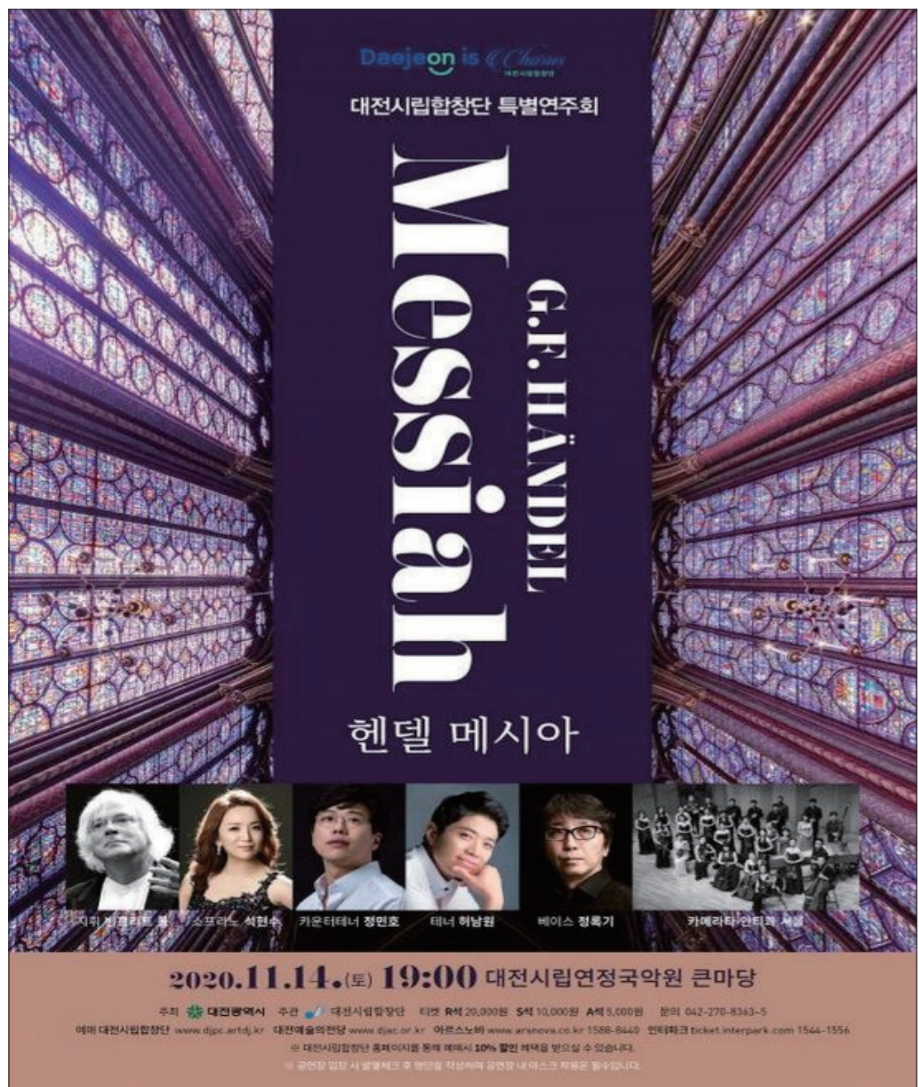
11월 21일 그랜드오페라단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공연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공연으로 그랜드오페라단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가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랜드오페라단'은 1996년에 창단된 단체로서 오페라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기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

부가 공동주관하는 학교-지역 연계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주관단체로 선정되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조성 배양에 기여해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들이 선보이는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는 어린이와 가족 관객에게 작곡가 모차르트를 소개하는 작품으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교향곡들을 좀 더 친근하고 즐겁게 알아가는 공연이다. 2015 ~ 2017년 연속으로 세종체임버홀에서 공연해 객석 점유율 97%를 달성한 공연이기도 하다.

최재은기자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헨델 메시아'



14일 오후 7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대전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헨델 메시아'가 오는 14일 오후 7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무대에 오른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헨델 메시아'는 복음서와 예언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 부활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궁극에는 '신을 향한 영광의 찬가'로 이어진다. 합창곡 '할렐루야'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넘어 인류의 음악 유산이 된 걸작으로 꼽힌다.

연주회는 빈프리트 톨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대전시립합창단과 카메라 안티과 서울, 소프라노 석현수, 카운터 테너 정민호, 테너 허남일, 베이스 정복기 등 국내 최고의 성악자들이 함께한다. '메시아'는 헨델의 여섯 번째 오라토리오로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으로 구성돼 있다.

'메시아'는 특히 뛰어난 합창곡이 많은 작품으로 꼽히는데 그중에서도 제2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합창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하다.

'메시아'의 영국 초연 당시 국왕 조지 2세가 합창을 듣고 기립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고정화기자



‘범어 마크씨밋’ 이달 13일 홍보관개관

‘범어 마크씨밋’ 이달 13일 홍보관 개관
 교육·교통·생활 등 원스톱 생활인프라 강점
 주거 비용 부담 덜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 대안 될 듯

(가칭) 범어마크씨밋지역주택조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범어 마크씨밋’의 홍보관을 이달 13일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을 개시한다. 시공예정사는 현대엔지니어링(주)이며, 업무대행사는 ㈜석정도시개발과 ㈜석정마크씨밋이다.

‘범어 마크씨밋’은 지하 5층 ~ 지상 최고 45층, 총 8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 74 ~ 84㎡ 807가구 7개 동이며, 오피스텔은 전용 50 ~ 63㎡ 160실 1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성구는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

이다. 서울 강남 대치동과 비견될 정도의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해 대구고등검찰청·대구은행 본점·주요 증권사 등이 자리해, 대구의 중심지로 손꼽힌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에 기반, 주거 선호도 역시 높다. ‘범어 마크씨밋’은 수성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우선,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동천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청구중·청구고 등도 도보 10분 내외로 도달 가능하다. 또한, 신천초·동도초·범어초·대구동중·대구중앙고·대구여고·대구과학고·경신고 등 명문 학군도 가깝다. 이밖에도 인근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들어 서있는 각종 학원가 이용이 쉬워,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또한 강점이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반경 500m 내 위치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다. 아울러, 차량 7분 거리에는 KTX

·SRT·대구 지하철 3호선이 정차하는 복합환승센터인 동대구역이 위치해 있어, 지역 내 이동은 물론 전국 주요도시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향후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을 비롯, 대구 - 광주선 달빛 내륙철도·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범어 마크씨밋’은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단지다. 인근 MBC 네거리 등을 통해 검단일반산업단지까지 약 2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대구 제3일반산업단지를 비롯, 서대구 일반산업단지·성서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 역시 차량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현대아울렛·이마트 등이 가깝고, 수성구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범어 로데오타운이 지근거리 에 있다. 수성구청을 비롯해 행정복

지센터·소방서·세무서·우체국·대구지방법원 등의 이용이 쉽고, 병원·은행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야시골공원·범어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도 가능할 전망이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수성구 대흥동 일원 97만 여 ㎡ 부지에 의료·IT·소프트웨어 등 지식 기반 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수성의료지구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조성 시, 산업기능과 문화·상업·주거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시너지는 물론, 지역의료 관광

산업 활성화·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서비스산업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테마파크·위락시설·미술관·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도 오는 2024년 완료된다.

내·외부 설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탁 트인 도심 뷰를 누릴 수 있는 최고 45층 높이의 건축 계획도 기대되는 요소다. 가구 내부는 발코니 확장형(무상)으로 설계되며, 펜트리 및 드레스룸이 전 가구에 제공된다.

커뮤니티 공간도 다수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를 비롯, GX룸·실내골프연습장·어린이집·작은도서관·시니어룸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광장이 단지 중심부에 위치하며, 잔디마당·계절초화원·건강쉼터·티하우스 등 휴게공간도 단지 곳곳에 조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 여파로 입지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며 “‘범어 마크씨밋’은 수성구의 각종 주거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 상대적으로 주

거 비용 부담이 덜한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공급

되는 만큼, 조합원 모집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어 마크씨밋’ 홍보관은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19에 마련된다.

문의 : 1670-1881

박류석/대기자



대구 범어 마크씨밋

금성백조,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THE CENTRAL & 애비뉴스완' 오는 13일 모델하우스 오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전 예약제 운영, 10일(화)부터 홈페이지 방문예약 접수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 99~152㎡, 총 894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최중심 입지

▶지역내 최고층 및 5·6Bay 특화 설계, 뉴욕 테마 프리미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 명품단지

금성백조는 오는 13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THE CENTRAL & 애비뉴스완'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RC블록에서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99~152㎡, 총 894가구의 아파트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만 2,581㎡ 규모의 프리미엄 상업시설인 '애비뉴스완'이 함께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99㎡A 297가구, ▲99㎡B 296가구, ▲107㎡ 198가구, ▲115㎡ 99가구, ▲152㎡P 4가구로 구성되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방문 예약자 및 동반 1인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모델하우스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준비된다.

페이지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방문 예약자 및 동반 1인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모델하우스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준비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경북도 지역 거주자로서 6개월 이상 가입된 청약 통장에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된다. 세대주 및 세

대에원에 관계없이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 교육·교통·자연환경·생활 인프라 등 우수한 명품 입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최중심에 위치해 교통, 교육, 자연환경,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단지로서 무엇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최고층인 35층으로 압도적 전망과 뷰를 기대

한다.대구산업선 테크노폴리스역이 단지 인근 조성 예정으로, 향후 탁월한 교통여건을 누릴 수 있다. 2027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을 이용하면 테크노폴리스역에서 서대구역이 있는 대구시내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북현동IC가 인접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역이동이 수월하며, 대구수목원-테크노폴리스간 진입도로를 이용하면 대구 시내권에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명문으로 꼽히는 포산고를 비롯해 초·중·고가 다수 위치해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다. 또 중심상업지구

에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고,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계명대 달성 캠퍼스와 경북대 캠퍼스(예정부지)도 가까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동측으로 비슬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서측에는 축구장 약 9배 면적 크기인 약 6.4만㎡ 규모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하다. 또 과학관공원, 비슬구천공원 등도 가까이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는 중심상권을 바로 도보로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내에는 뉴욕 맨하탄의 감성을 적용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최초의 테마형 스트리트몰 '애비뉴스완'이 조성되기 때문에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은 대구국가산업단지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해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인근에는 백선일반산업단지와 달성1·2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 건설명가 금성백조의 '명품 설계'로 차별화된 상품 선보여

2021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금성백조는 대전 대표 증권건설사로 2020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48위를 기록하며 지속성장 중이다.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에미지는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대회에서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2회 수상하며 입지는 물론, 브랜드가치와 상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은 여유있는 대형 주력 평형을 바탕으로 5·6bay설계와 펜트하우스 세대를 구성해 명품 주거단지로 특화했다. 특히 전용 99㎡ 타입의 경

우 다용도 알파룸이 있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용 99㎡ B 타입은 3면 발코니를 통해

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전용 107㎡과 전용 115㎡ 타입은 5Bay 구조로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펜트하우스인 전용 152㎡ 타입은 6Bay 적용은 물론 야외테라스와 가족실로 특화했다. 또 전세대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축구장 1.5개 크기의 중앙공원을 조성해 개방감이 탁월하며, 넓고 탁트인 단지 조성을 위해 1층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주차장을 100% 지하로 설계하여 쾌적한 공원형 단지를 누릴 수 있으며 차가 다니지 않아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보행에 있어 안전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은 주거복합단지

로 금성백조의 프리미엄 상업시설 '애비뉴스완'이 함께 들어선다. 복합 테마스트리트몰인 '애비뉴스완'은 김포한강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선풍적 인기로 조기 완판되면서 검증된 상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구에서 선보이는 '애비뉴스완'은 6개의 앵커시설과 각종별 수익보장형 운영부분을 보완

하여 특화 MD가 가능한 상업시설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핵심 입지로 인근 아파트 수요는 물론 이국적 외관과 차별화된 앵커시설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 소호스트리트 등 뉴욕 맨하탄을 모티브로 총 5개의 이국적 테마를 적용한 콘셉트 디자인을 선보여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은 2023년 11월 입주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불리 620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청약 및 자세한 상담은 문의전화 및 홈페이지 관심고객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이버모델하우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아파트 1899-2006 / 상업시설 : 1899-0023〉

박류석/대기자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THE CENTRAL & 애비뉴스완